「취업진로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33호)
(사)한국취업진로학회
2021. Vol. 11, No.1, pp.115~134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1.11.1.005

논문접수일 : 2021년 02월 03일
최종수정일 : 2021년 03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3월 24일

중장년의 노후준비도가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황주경 (경기대학교)** ·**강순희** (경기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의 노후준비도가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후준비도와 재취업욕구 간에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총 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타당도검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자립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력자일수록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 이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났다. 중장년이 노년기로 진입할수록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또한, 중장년은 노후준비도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도와 재취업욕구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사회적 노후준비도에 대한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실현 재취업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도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지위 재취업욕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노후준비도가 상대적 영향력이 컸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도로 나타났다.

셋째, 중장년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사회적지지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도는 사회적지지를 통해 중장년의 재취업욕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장년은 개인의 노후준비도에 따라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나 동기가 다양하며, 재취업을 하는 목적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중장년의 노후준비도와 재취업욕구에 사회적지지가 부분매개 한다는 연구 결과는 중장년의 재취업지원이 욕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중장년이 재취업하는 일자리는 만족도나 질이 낮기 때문에 중장년의 재취업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취업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거나, 재취업에 대해 불안해하는 중장년이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장면에서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정서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중장년, 노후준비도, 재취업욕구, 사회적지지.

* 본 논문은 경기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제1저자,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수료; E-mail: 522joo@hanmail.net.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E-mail: soonhiekang@kgu.ac.kr; Tel: 031-249-9055; Fax: 031-249-9055.

Ⅰ. 서 론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도에 62.3세에서 2019년도에 83.3세로 21년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 스위스 등에 이어 기대수명이 긴 나라에 속한다(통계청, 2020). 하지만, ‘생애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는 평균연령이 2017년 기준 49.1세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중장년기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8). 이와 같이 길어진 기대수명과 빨라진 퇴직으로 중장년의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 조사를 살펴보면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에 응답한 40대는 56.8%, 50대는 50.5%, 60대는 50.2%이며, ‘약간 준비되어 있다’에 응답한 40대는 33.2%, 50대는 40.4%, 60대는 37.0%로 나타나(사회통합실태조사, 2019) 실제 중장년의 노후준비 정도는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고령자 고용률*은 2000년대 50% 초반에서, 2013년 이후 55%를 보이며 2020년 현재는 55.7%를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20). 중장년의 노후준비도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년 고용률은 퇴직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중장년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중장년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재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나, 이들의 재취업욕구를 충족할 만큼 일자리의 양과 질은 충분하지 않으며, 재취업지원 시스템도 미흡하다(강순희, 2016).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고용불안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고용불안이 지속 되고 있는 환경에서 심리적인 요인은 재취업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박태정・홍상욱, 2020).

재취업욕구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특성 및 소득을 중심으로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박강석, 2015; 신연하・이동명, 2017). 또한, 심리적 상태가 재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자기효능감(이한석 외, 2019)과 사회적 관계망(한운옥, 2019; 김종향, 2011)에 대한 연구가 있다. 특히, 사회적지지는 태도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노동시장 재진입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연하 등, 2018).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은, 중장년 세대 특성 확인(염인숙, 2019)이나, 중고령자 재취업 결정요인(강순희, 2016), 베이비붐 퇴직자 진로전환(박상우, 2019), 재취업 의도(강경란, 2018)연구,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보라 등, 2019)에 집중이 되어있다. 더욱이 노후준비 수준과 같은 동기나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거나 재취업을 위한 대안을 제시(김수영 등, 2015)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형성한 노후준비도와 사회적지지가 퇴직 이후 재취업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개인 차원과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강경란, 2018)는데 본 연구와 기존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이 신체적 건강상태와 경제적 준비 상황 등을 포함한 포괄적 노후준비 수준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 중고령자고용률 = (만 50세 이상 취업자수 ÷ 만 50세 이상 인구) × 100.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노후준비도와 재취업욕구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더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과 재취업 만족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의 노후준비도에 따라 재취업욕구는 어떻게 다른가?

둘째, 중장년의 노후준비도와 사회적지지가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중장년의 노후준비도와 재취업욕구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2.1 노후준비도의 특성과 주요변인과의 관계

노후준비도의 정의는 「노후준비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정의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며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에서 삶의 만족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창제, 2008).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보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역들에 대해 현재 갖춰진 상태를 노후준비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상태에 대한 진단(홍서연・김미량, 2020)을 노후준비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장년의 노후준비도는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중년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화 되고 있으며(정주원 등, 2015).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와 함께 주요한 역할로부터의 정체성 상실을 경험하고(박지현, 2018),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노후 생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조추용 등, 2009)에 남은 노년기를 적극적으로 보내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은 노후생활에 대해 국가차원의 보장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준비 및 계획을 가져야 한다(박성준, 2016).

노후준비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요소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3개 측면으로 살펴보고 있으며(박지현, 2018; 손덕화, 2017; 강유진, 2005; 염인숙, 2019; 정주원・조소연, 2015), 그 다음으로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여가에 대한 요인으로 구분(조추용 등, 2009; 신수민, 2013; 양순미・홍숙자, 2002)하였고,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측면(박성준, 2016)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노후준비를 통해 노년기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잘 적응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년기(김미령, 2008)이며, 더불어 노년기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신수민, 2013). 따라서 중장년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고 남은 노년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준비도와 사회적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손덕화(2016)의 연구에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도는 사회적지지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령에 따라 노후준비도와 사회적지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행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므로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기영(201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노후준비도가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노후준비도가 삶의 만족도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또한, 정일영(2015)의 연구에서도 노후준비도가 사회적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노후준비로 비축된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와 활동을 영위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노년기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간접 효과를 검증하여 사회적지지가 노년기 생활 만족 수준을 높이는 강력한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수민(2013)의 연구에서는 취미와 여가 등의 사회적지지는 노년기의 활동적인 노후 생활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가설에 따라 실증연구를 통해 노후준비도가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심리 사회적 자원은 노후준비와 활동적인 노화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판단하였다.

노후준비도와 재취업욕구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경란(2018)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경제적 준비도와 재취업욕구 간의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밝히고 경제적 노후준비도를 기준으로 보는 것은 소극적인 준비이며 정서적 노후준비도를 포함하는 것이 적극적 노후준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적극적 노후준비는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인숙(2019)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사회적 노후준비도가 높은 중고령자의 재취업욕구가 높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재취업욕구의 요인에 대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강순희(2016)의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중고령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재취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며, 권희경(2010)은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낮아 경제적 압박을 느끼는 경력단절여성에게서 재취업욕구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노후준비의 상태는 재취업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노후준비도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재취업욕구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노후준비도와 사회적지지, 재취업욕구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삶의 만족 관점에서 개인의 생존과 성장 발달을 위해 노후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삶의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삶의 질로써 자아실현이나 일의 성취가 포함되며(박혜전, 2007)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실현을 하게 되어 직업세계에 진입하려는 욕구(송성이, 2009)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사회적지지의 특성과 주요변인과의 관계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의 긍정적 자원으로(Cohen & Hoberman, 1983)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 받는 다양한 도움 또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질을 의미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자원으로 기능한다(박용두・이기학, 2008). 학자들에

따라 사회적지지의 정의나 하위개념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종합해 보면 사회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 자원으로써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요인(박인숙・안성식, 2019)으로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중장년이 갖는 사회적지지는 재취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와 재취업욕구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신연하・이동명(2018)의 경력단절여성 대상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경제적욕구와 자아실현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지지는 직업 만족과 자아 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손정민(2017)은 사회적지지에 가족 간의 관계를 주요변수로 재취업욕구 수준을 분석하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재취업욕구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지지가 재취업욕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박정열・손영미(201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정서적 전략이 재취업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정서는 재취업욕구를 좌절시킨다고 하였다. 특히, 사회적지지에서 가족 관계를 중요한 변수로 보아 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가족에게 말하고 공유하는 등의 행동이 재취업욕구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경재(2015)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사회적지지는 퇴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욕구에 영향을 주어 재취업의 동기를 고취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병훈(2002)은 구직자들이 사회적 연결망에 의해 재취업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구직자들이 재취업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사회적 연계에 의해 구직정보의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안상수 등(2005)의 중장년 실업자 대상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지지가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낮추는 영향요인으로 취업에 대한 욕구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에, 김은심(2020)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요소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이며, 내재된 심리적 요인 가운데 재취업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재취업욕구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에서 취업불안과 사회적지지는 재취업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희경(2010)의 연구에서도 가족과 친인척 등의 사회적지지는 재취업욕구에 대한 보조적인 고려사항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는 독립적인 요인보다 재취업욕구를 중재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중장년의 재취업욕구를 제고하여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재취업욕구에 관한 연구

재취업이란 노동시장으로부터 일정 기간 단절되었다가 여가 또는 생계 등의 목적으로 새롭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서명호, 2019)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실업의 증가와 조기퇴직 등의 영향으로 퇴직한 이후에도 곧이어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을 얻거나 퇴직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김영범, 2008)라고 할 수 있다.

재취업욕구의 개념은 다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이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지만 일을

통해 삶의 비전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를 포함(이보라 등, 2019)하고 있으며, 얼마나 일을 하고 싶은지, 일을 하고 싶은 동기는 무엇인지 인지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염인숙(2019)은 중고령자의 재취업욕구에 대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나 동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재취업을 통해 자기실현과 여가선용 그리고 사회적지위 획득과 경제적자립의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일과 관련된 동기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과 삶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염인숙, 2019) 재취업을 통해 중장년이 얻고자 하는 삶의 의미나 재취업 촉진 동기 등이 포함된 재취업욕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재취업욕구의 하위요인을 자기실현과 여가선용, 경제적자립과 사회적지위의 4개로 구분하고 중장년의 노후준비와 재취업욕구와 그리고 사회적지지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재취업욕구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밝히고(김수영 등, 2015), 중장년에게 재취업욕구가 갖는 의미와 효과(송인주, 2008)에 대한 연구와, 재취업욕구와 관련된 변인연구(이응목 등, 2017; 양혜진 등, 2017; 서명호, 2019; 박강석, 2015; 김보민, 2019),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유길상 등, 2005; 이상은, 2012; 이현기, 2001) 등이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경력단절 여성(이보라 등, 2019; 손정민, 2016; 신연하 등, 2017; 박정열 등, 2016; 권희경, 2010; 김은심, 2020; 한운옥 등, 2019)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의 연구(이응목 등, 2017; 염인숙, 2019; 강경란, 2018)에서 베이비부머세대와 중장년 및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중장년의 재취업욕구과 관련된 연구는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장년의 재취업은 노후준비 수준과 관련하여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외감 해소와 능동적인 사회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기여하므로(송성이, 2009), 본 연구에서는 재취업욕구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된 인구학적인 변인이나 가족 관련 변인 이외에 사회적지지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중장년이나 중고령자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중장년이라고 하면 만 45세에서 만 65세 미만 또는 만 50세에서 만65세 미만으로 볼 수 있으므로(김보민, 2019), 본 연구에서는 40대 근로자들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현상이 심화 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65세 이상부터 급격히 줄어든다는 김보민(2019)의 연구에 따라 만 45세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경기 지역의 45세에서 64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하였으며, 50+센터와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63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3.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Varimax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노후준비도, 사회적지지, 재취업욕구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고. 넷째, 재취업욕구에 대한 변인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유의도 P<.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섯째, 재취업욕구와 노후준비도 간의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3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총 44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6문항, 노후준비도 13문항, 사회적지지 14문항, 재취업욕구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의 범주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고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으며 재취업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의 노후준비도와 사회적지지, 재취업욕구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3.3.1 노후준비도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도는 손덕화(2016), 강유진(2005)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 측정하였고 문항 수는 신체적 노후준비 3문항, 경제적 노후준비 5문항, 사회적 노후준비 5문항으로 총 13문항이다. 신체적 노후준비 3개 문항은 구성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여 베리맥스 방식으로 회전하여 5개의 문항 중에 2개의 문항이 삭제되고 3개의 최종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한 요인에 3개 이상의 문항이 포함되면 수학적 요인으로 인정하여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기존 연구(권금주, 2013)를 참고하여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노후준비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3개가 추출되었으며, 총분산에 대한 누적적 재량은 65.238%이다. 신뢰도 분석에 따른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신체적 노후준비 .657, 경제적 노후준비 .898, 정서적 노후준비 .771이었다. 노후준비 척도에 대해 Cronbach's α 값이 .5이하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문항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홍서연 등. 2020)를 참고하여 전체적인 요인문항 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구의 목적을 위해 분석하는데는 신뢰도 .6 이상의 수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3.2 사회적지지

본 연구의 사회적지지 측정 도구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유은경・설현수(2015)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대상자가 응답한 263개의 설문의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방식으로 회전하여 요인부하량 .5 이하의 수준 문항을 삭제하여 단일요인으로 자동 추출되었다. 유은경・설현수(2015)의 사회적지지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 모형 연구에서 검사 모형과 개별 문항의 타당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총점을 사용하는 자체가 이미 척도의 일차원성을 가정하고 있고, 검사 내부적으로 새로운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지지 척도는 개념적으로 상이한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지지'라는 동일한 변수를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유은경・설현수, 2015)는 결론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라는 공통요인을 측정하고 있다고 보아 측정도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지지의 Cronbach's α 계수는 .963으로 높게 나타났다.

3.3.3 재취업욕구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재취업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송성이(2009)가 번안한 연구를 참고하여 총 18개 문항과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실현 5개 문항, 사회적지위 5개 문항, 경제적자립 4개 문항, 여가선용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재취업욕구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Cronbach's α 계수는 자기실현 .862, 사회적지위 .877, 경제적자립 .851, 여가선용 .791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1> 노후준비도, 사회적지지, 재취업욕구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문항	요인 부하량	신뢰도	
노후준비도	신체적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꾸준히 먹고 있다	.862	.657	KMO=.900 근사카이 제곱 = 1628.292 p<.001
		건강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805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	.784		
	경제적	부동산 자산 이외에 금융이나 연금 등의 자산이 있다	.781	.898	
		꾸준한 저축을 해오고 있다	.778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있다	.750		
		나의 연령대 평균 이상의 부동산 자산이 있다	.698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원에 대한 대책이 있다	.672		
	사회적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활동을 갖고있다	.639	.771	
		의미 있고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596		
		요양 간병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두었다	.808		
		친구들과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765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570		
사회적지지		몰랐던 사실을 잘 설명해 준다	.870	.963	KMO=.964 근사카이 제곱 = 3325.735 p<.001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조언해 준다	.865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865		
		의논할 일이 있을 때 시간을 내주고 응원해 준다	.858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857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854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849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음	.839		
		필요로 하는 물건을 언제라도 빌려준다	.834		
		몸져누웠을 때 일을 대신 해 준다	.824		
		직접 도울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보내 준다	.817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 준다	.764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 준다	.750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	.693		
재취업욕구	자기실현	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다	.784	.862	KMO=.900 근사카이 제곱 = 1628.292 p<.001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779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779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761		
		새로운 일에 도전할 기회가 생기면 하고 싶다	.719		
	사회적지위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할 것이다	.800	.877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	.787		
		사회적 명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779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735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할 것이다	.719		
	경제적자립	남이 선호하지 않는 일도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다	.853	.851	
		가정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일을 할 것이다	.849		
		경험이 없는 일도 생활에 도움이 되면 할 것이다	.836		
		가장 힘든 건 경제적인 해결이다	.783		
	여가선용	집안일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좋다	.848	.791	
		일보다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	.736		
		시간 활용이 가능한 일이 좋다	.730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일이 좋다	.718		

Ⅳ. 연구 결과

4.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분석결과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263명이며, 남성 163명(62.0%), 여성 100명(38.0%)으로 남성이 다소 많게 구성되었다. 연령은 45세~54세 이하 124명(47.1%), 55세~64세 이하 139명(52.9%)이며, 학력은 고

졸 이하 95명(36.1%), 대졸 이상 168명(63.9%)으로 전체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다. 배우자 유무에 대해서 배우자 없음 35명(13.3%), 배우자 있음 228명(86.7%)으로 유배우자의 경우가 4배 이상 많았다.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직업 없음이 85명(32.3%), 직업 있음이 178명(67.7%)이며,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59명(22.4%)으로 가장 적었고, 400만원 이상이 88명(33.5%), 200만원~400만원 미만이 116명(44.1%) 순이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중(%)
성별	남자	163	62.0
	여자	100	38.0
연령	45세-54세 이하	124	47.1
	55세-64세 이하	139	52.9
학력	고졸 이하	95	36.1
	대졸 이상	168	63.9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	35	13.3
	배우자 있음	228	86.7
직업유무	없음	85	32.3
	있음	178	67.7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59	22.4
	200만원-400만원 미만	116	44.1
	400만원 이상	88	33.5

4.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후준비도의 하위요인과 재취업욕구의 하위요인과 사회적지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8 이상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으며(Hocking & Pendleton, 1928)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신체적 노후준비도는 사회적지지(r=.451, p<.01)와 자기실현(r=.365) 재취업욕구에 대해서 정(+)적으로 높은 상관이 나타났고, 경제적 노후준비도는 경제적(r=-.449, p<.01) 재취업욕구에 대해 부(-)적 상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는 사회적(r=.601, p<.01) 노후준비도와, 자기실현(r=.538, p<.01) 재취업욕구에 대해 정(+)적으로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위 재취업욕구는 사회적(r=..426) 노후준비도와 정(+)적으로 높은 상관이 나타났고, 여가선용 재취업욕구는 사회적(r=.348, p<.01) 노후준비도와 정(+)적으로 높은 상관이 확인되었다. 이중 경제적자립 재취업욕구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도, 사회적지지와의 상관관계에서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표 3> 노후준비와 사회적지지와 재취업욕구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인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노후준비	신체적									**p<.01
	경제적	.436**								
	사회적	.491**	.510**							
사회적지지		.451**	.414**	.601**						
재취업욕구	자기실현	.365**	.295**	.410**	.538**					
	사회적지위	.305**	.392**	.426**	.421**	.547**				
	경제적자립	-.176**	-.449**	-.237**	-.171**	.030	-.090			
	여가선용	.240**	.303**	.348**	.312**	.350**	.377**	-.045		

4.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주요변인의 하위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재취업욕구 하위요인 가운데 평균은 자기실현(M=3.970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여가선용(M=3.6074), 사회적지지(M=3.54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도(M=2.9141)가 가장 낮았다. 표준편차는 경제적 노후준비도(SD=.84568), 경제적자립 재취업욕구(SD=.73942), 사회적 노후준비도(SD=.73013) 순이며, 자기실현 재취업욕구(SD=.5460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구분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후준비도	신체적	1.67	5.00	3.4463	.70687
	경제적	1.00	5.00	2.9141	.84568
	사회적	1.80	5.00	3.3551	.73013
사회적지지		.1.64	5.00	3.5410	.68136
재취업욕구	자기실현	2.00	5.00	3.9703	.54608
	사회적지위	1.00	5.00	3.2852	.71434
	경제적자립	1.25	5.00	3.4620	.73942
	여가선용	1.25	5.00	3.6074	.63914

4.4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4.1 노후준비도와 사회적지지, 재취업욕구 영향관계

중장년의 노후준비도와 재취업욕구에 대한 영향관계, 그리고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장년의 재취업욕구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1단계와 2단계를 <표 5>에, 3단계 회귀분석과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sobel test 결과는

<표 6>에 각각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노후준비도가 사회적지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44.4%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통계적으로 F=22.420(p<.001)로 나타나 유의미하였다. 사회적지지에 대해 연령(t=-3.005, p<.01)과 신체적(t=3.109, p<.01) 노후준비도와 사회적(t=17.653, p<.001) 노후준비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도는 사회적지지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효한 변인들의 β값의 절대치를 비교하면, 사회적(β=.459) 노후준비도, 신체적(β=.174) 노후준비도, 연령(β=-.155)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노후준비도의 상대적 영향력이 크다.

2단계에서는 자기실현 재취업욕구에 대한 노후준비도의 영향관계에서 설명력은 22.2%이며, F=8.027(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노후준비도에서는 신체적(t=3.101, p<.01), 사회적(t=3.644, p<.001), 노후준비도가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나타냈으며, 유효한 변인간의 β값 절대치를 비교하면 사회적(β=258), 신체적(β=.205)순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위 욕구에서도 사회적 노후준비도의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지위 재취업욕구에 대한 노후준비도의 영향관계에서 설명력은 24.7%이며, F=9.20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으며, 학력(t=2.361, p<.05)과 경제적(t=2.354, p<.05), 사회적(t=3.622, p<.001) 노후준비도가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학력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 수록 사회적지위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신체적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효한 변인의 β값의 절대치를 비교하면 사회적(β=.253), 경제적(β=.171) 노후준비도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위 재취업욕구에서도 사회적 노후준비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제적자립 재취업욕구에 대한 노후준비도의 영향관계에서 설명력은 29%이며, F=11.47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성별(t=3.453, p<.01), 월평균소득(t=-3.403, p<.01), 경제적(t=-4.812, p<.001) 노후준비도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나, 여성의 경우와 소득이 낮고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낮을 수록 경제적인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적, 사회적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가선용 재취업욕구에 대한 노후준비도의 영향관계에서 설명력은 17.5%, F=5.98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t=-2.975, p<.01)와 사회적(t=3.620, p<.001) 노후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고,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4.4.2 노후준비도와 재취업욕구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3단계에서는 노후준비도와 사회적지지가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자기실현 재취업욕구에 대한 영향관계에서 신체적(t=2.480, p<.05) 노후준비도와 사회적지지(t=7.459, p<.001)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고 경제적 노후준비도와 사회적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장년이 신체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재취업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지위 재취업욕구에 대한 영향관계에서는, 경제적(t=3.249, p<.01), 사회적(t=3.169, p<.01) 노후준비도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효한 변인의 β값의 절대치를 비교하면 사회적(β=.227), 경제적(β=219)노후준비도와 학력(β=.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과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일자리에 대한 재취업욕구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자립 재취업욕구와 노후준비도의 영향관계에서 경제적(t=-5.233, p<.001) 노후준비도와 월평균소득(t=-3.546, p<.001), 성별(t=3.484, p<.001), 학력(t=-2.055, p<.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을 제외한 유효한 모든 변인은 경제적자립 재취업욕구와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으며 신체적, 사회적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크고 월평균소득과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재취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선용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적(t=2.103, p<.05) 노후준비도, 사회적(t=3.186, p<.01) 노후준비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유효한 변인의 β값의 절대치를 비교하면 사회적(β=.238), 경제적(β=.150) 노후준비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선용을 위한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후준비도가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재취업욕구와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각 단계별 하위요인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 자기실현 욕구에서 신체적 노후준비도는 2단계(β=.205)가 3단계(β=.146) 보다 β값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지지(t=7.459, p<,001)의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2단계의 사회적(β=.258) 노후준비도는 3단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t=6.748, p<.001)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사회적지위 재취업욕구에서 사회적 노후준비도는 2단계(β=.253)가 3단계(β=.225) 보다 β값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지지(t=3.157, p<.01)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도와 사회적지지는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여가선용 재취업욕구에서 사회적 노후준비도는 2단계(β=.264)가 3단계(β=.238) 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지지(t=1.971, p<.05)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적 노후준비도는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자기실현, 사회적지위, 여가선용 재취업욕구에, 신체적 노후준비도는 자기실현 재취업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4.3 Sobel test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Sobel test의 경우 +1.96 보다 크거나 -1.96 보다 작으면 통계적로 유의미(Baron&Kenny, 1986)하므로, 자기실현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Sobel test 값은 신체적 노후준비도가 5.084(p<.001), 사회적 노후준비도가 5.671(p<.001)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표 5> 노후준비도와 사회적지지, 재취업욕구의 영향관계 분석결과

변인			1단계 (매개변인-사회적지지)			2단계(종속변인-재취업욕구)											
						자기실현			사회적지위			경제적자립			여가선용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통제변인		상수	1.576		7.265***	2.601		12.649***	1.640		6.194***	4.434		16.669**	2.256		9.104***
		성별	-.010	-.007	-.142	.033	.030	.498	-.041	-.028	-.473	2.98	.196	3.453**	-.033	-.025	-.409
		연령	-.211	-.155	-3.005**	-.026	-.023	-.384	-.025	-.017	-.286	.006	.004	.070	-.059	-.047	-.740
		학력	.101	.072	1.394	.119	.105	1.730	.210	.141	2.361**	-.165	-.108	-1.851	.029	.022	.355
		배우자 유무	-.066	-.033	.659	.033	.002	.029	.011	.005	.093	.025	.011	.202	.338	.180	2.975**
		직업 유무	-.067	-.046	-.901	.031	.027	.436	-.015	-.010	-.162	-.005	-.003	-.051	.029	.021	.340
		월평균 소득	.093	.101	1.766	.021	.029	.421	.030	.031	.461	-.220	-.221	-3.403**	.004	.004	.036
독립변인	노후준비도	신체적	.167	.174	3.109**	.158	.205	3.101**	.120	.119	1.887	.057	.055	.864	.085	.094	1.425
		경제적	.042	.052	.830	.017	.027	.364	.144	.171	2.354**	-.296	-.339	-4.812**	.069	.091	1.196
		사회적	.428	.459	7.653***	.193	.258	3.644***	.247	.253	3.622***	.016	.016	.232	.231	.264	3.620***
Durbin-Watson			1.797			1.805			1.825			1.977			1.725		
R^2			.444			.222			.247			.290			.175		
F			22.420			8.027			9.203			11.474			5.982		

남성=0. 고졸이하=0. 배우자 없음=0. 직업없음=0. *** p<.001 ** p<.01 * p<.05

<표 6> 노후준비도와 재취업욕구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변인		3단계(종속변인-재취업욕구)											
		자기실현			사회적지위			경제적자립			여가선용		
		B	β	t	B	β	t	B	β	t	B	β	t
독립	신체적	.113	.146	2.480*	.120	.119	1.887	-.056	-.054	-.851	.085	.094	1.425
매개	사회적지지	.367	.458	7.459***	.315	.301	4.611***	.030	.027	.415	.225	.240	3.499**
Durbin-Watson		1.842			1.834			1.994			1.797		
R^2		.323			.232			.196			.128		
F		15.119			9.606			8.984			5.794		
독립	경제적	.039	.060	.922	.185	.219	3.249**	-.300	-.343	-5.233***	.113	.150	2.103*
매개	사회적지지	.402	.502	8.415***	.304	.290	4.673***	.108	.099	1.646	.222	.237	3.614***
Durbin-Watson		1.860			1.863			2.002			1.790		
R^2		.287			.229			.294			.136		
F		14.164			10.729			13.247			6.144		
독립	사회적	.079	.105	1.534	.222	.227	3.169**	-.133	-.132	-1.815	.209	.238	3.186**
매개	사회적지지	.369	.460	6.748***	.235	.225	3.157**	.084	.078	1.078	.138	.147	1.971*
Durbin-Watson		1.892			1.867			1.988			1.792		
R^2		.291			.251			.228			.154		
F		14.435			10.646			9.395			6.984		
Sobel test	신체적	5.084***			3.850***			0.422			3.135**		
	경제적	4.305***			3.422**			1.577			2.915**		
	사회적	5.671***			3.005**			1.071			1.938		

남성=0. 고졸이하=0. 배우자 없음=0. 직업없음=0. *** p<.001 ** p<.01 * p<.05

사회적지위 재취업욕구에 대한 사회적 노후준비도의 Sobel test 값은 3.005($p<.01$)로 부분매개효과에 대해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여가선용 재취업욕구에 대한 사회적 노후준비도의 Sobel test 값은 1.938($p<.05$)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중장년의 노후준비 수준에 따른 구체적인 재취업욕구를 살펴보고 노후준비 수준과 재취업욕구 사이에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총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SPSS 25.0을 활용하여 회귀모형과 매개효과 등을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대한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사회적 노후준비도는 자기실현과 여가선용을 위한 재취업욕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도는 사회적지위를 위한 재취업욕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노후준비도는 경제적자립을 위한 재취업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염인숙, 2019; 강경란, 2018; 김은심, 2020; 권희경, 2010) 중장년층의 재취업욕구는 단순히 경제적자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실현, 사회적지위, 경제적자립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인 준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실현을 위한 재취업이 어려우며, 사회적지위에 대한 욕구 역시 활동력 있는 신체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여성과 월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장년은 경제적인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중장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급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은 하고 있으나 재취업 일자리에 불만족을 갖는(강순희, 2016)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가선용에 대한 재취업욕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장년은 곧 다가올 노년기에 대비하고,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욕구에 의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자기실현 욕구와 사회적지위 욕구, 여가선용 욕구에서 완전 또는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도는 사회적지지를 통해 중장년의 재취업욕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연하・이동명(2018), 손정민(2017), 박정열・손영미(2016), 오승국(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사회적지지가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권희경(201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는 중장년의 개인적인 변인과 노후준비 수준의 상호작용(김은심, 2020)을 통해서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장년은 개인의 노후준비도에 따라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나 동기가 다양하

며, 재취업을 하는 목적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중장년의 노후준비도와 재취업욕구에 사회적지지가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는 그동안의 연구들이 재취업요인 분석이나 재취업 행동에 집중하였던 점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특히, 중장년이 재취업하는 일자리는 만족도나 질이 낮기 때문에(강순희 2016), 중장년의 재취업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취업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거나, 재취업에 대해 불안해하는 중장년이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장면에서 사회적지지와 같은 정서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년의 재취업욕구에 사회적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 요인 이외에 심리, 정서적인 측면을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장년의 재취업욕구가 개인적 특성보다 노후준비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재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재취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디지털혁명이나 코로나19 등 중장년의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 되고 있으므로 취업지원기관을 통한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설문 조사가 경기 지역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여야 하며 이는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또한, 재취업욕구는 자기보고식으로 조사되어 주관적 편차가 반영될 수 있으며,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면접법 등 자기보고식 질문지 이외의 자료수집 방법을 이용하여 재취업욕구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지지 이외에 다양한 심리·정서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References)

강경란(2018), **베이비붐 세대의 창·재취업의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강순희(2016), “중고령자 재취업의 결정요인, 일자리 만족도 및 고용안정성”, **취업진로연구**, 6(3), 117-140.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권금주(2013),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 연구”, **한국자료분석연구**, 15(2), 1009-1022.

권희경(2010), “경력 단절 기혼 여성의 재취업 욕구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87-98.

김나래 · 홍아정(2016), “중장년 구직자의 사회적지지가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폐기학습의 매개효과”, **평생교육학연구**, 22(2), 109-136.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김보민(2019), “중장년층 퇴직자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 **응용경제**, 21(1), 117-152.

김수영 · 장수지 · 이재정 · 문경주(2015), “베이비붐세대의 재취업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0(67), 107-132.

김영범(2008), “한국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社會 保障 硏究**, 24(3), 29-51.

김은심(2020),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에 관한 구조모형 연구**, 박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 대학원.

박강석(2015), “중·노년층의 재취업 의지 및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학기술학회**, 16(6), 3845-3857

박상우(2019),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진로전환에 관한 연구 :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산학기술학회**, 20(5), 155-162.

박성준(2016),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도가 성공적노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박용두 · 이기학(2008), “사회적지지, 자존감, 진로포부간의 성차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3(3), 263-282.

박인숙 · 안성식(2019),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9(2), 27-53.

박정렬 · 손영미(2016),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적응성, 진로장벽 및 재취업 이득/손실의 지각이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1), 101-121.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지현(2018), “통합적 노후준비도에 따른한국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연구: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준비 관점에서”, **한국정책연구**, 18(4), 105-120.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박태정 · 홍상욱(2020), “구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 : 의사소통 과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6(11), 69-83.

박혜전(2007), “노령 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특수교육저널**, 8(2), 169-195.

서명호(2019), **고령자 재취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손덕화(2017), “은퇴세대의 노후준비 및 심리사회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地域社會開發硏究**, 42(2), 167-183.

손정민(2017),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욕구궤적과 예측요인”, **사회보장연구**, 33(10), 33-55.

송기영(2019), “노인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9), 593-600.

송성이(2009), **준·고령자의 직업복귀유형별 재취업욕구와 미래시간전망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송인주(2008), “퇴직 남성노인 재취업 과정의 의미”, **한국노년학**, 28(3), 497-514.

신수민(2013), “과거 노후준비가 노년기의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 :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44(3), 57-83.

신연하 · 이동명(2017), “경력단절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른 재취업욕구 차이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9), 310-323.

신연하· 이동명(2018), “사회적지지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7), 138-152.

안상수 · 신강현 · 탁진국 · 한태영 · 한영석 · 유태영, · 황종오(2005), “중.장년층 실업자들의 실직에 대한 반응과 구직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3), 375-404.

양순미 · 홍숙자(200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변인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20(6), 141-149.

양혜진 · 김한곤(2017), “준고령자의 재취업결정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1), 242-261.

염인숙(2019), “중고령자의 개인적 특성과 노후준비가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4), 175-195.

오승국(2016), **중장년 남성 실직자의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유길상 · 성재민(2005),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재취업촉진 효과”, **社會 保障 硏究**, 21(2), 29-53.

유은경 · 설현수(2015), “사회적지지 척도의 요인구조 탐색”, **조사연구**, 16(1), 155-184.

이경재(2015), **베이비부머에 관한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퇴직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이보라 · 송수진 · 지수인 · 강정훈(2019),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人間發達硏究**, 26(1), 177-199.

이병훈. (2002), “구직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동경제논집**, 25(1), 1-20.

이상은(2012),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촉진 개선방안 : 서울고용센터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7(1), 55-68.

이웅목 · 유기웅(2017), “퇴직한 중년남성의 재취업과정 탐색”, **사회과학연구**, 28(2), 59-78.

이한석 · 이영균(2019), “신중년 긍정심리자본이 재취업의지에 미치는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5), 33-40.

이현기(2001), “고령자 재취업과 지역복지정책적의 함의”, **노인복지연구**, 11, 87-118.

정일영(2015), “과거 노후준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39(3), 161-191.

정주원 · 조소연(2015), “중장년층의 소득계층별 노후준비와 삶의만족도”, **가족자원경영학회**, 19(4), 19-33.

조추용 · 이근선 · 송미영(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홍서연 · 김미량(2020), “보편적 노후준비 척도 개발”, **여가학연구**, 18(4), 35-51.

한운옥 · 이영민(2019),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30(1), 27-43.

황남희(2018), “국민 노후준비 실태와 향후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182-204.

고용노동부(200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조사처(2018), **60세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영향분석**.

보건복지부(2013), **성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지표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20), **생명표**.

통계청(2019), **사회통합실태조사**.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Baron, R, M., & Kenny, D.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lology*, 51(6), 1173.

Cohen S., Kamarck T(1983), “Mermelstein R.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85-96.

Cohen S., Willis T.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57.

Hocking R. R., & Pendleton O. J.(1983), “The regression dilemma”, *Communications in Statistics-Theory and Methods*, 12(5), 497-527.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1, No. 1 - March 2021

The Effect of the Retirement Readiness of the Middle-aged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o-kyoung Hwang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Soon-hie Kang*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the retirement readiness of the middle-aged on the desire for re-employment, and verified whether there is a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them.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for a total of 263 people was analyzed, and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validity 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iddle-aged women had a greater desire for economic independence than men, and tthe more highly educated they were, the greater their desire not only economic stability but also to be socially recognized through the re-employment. It means that the older the middle-aged, the greater anxiety about life after retirement and less confidence. In addition,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among the middle-aged, the greater the desire to be recognized socially in addition to economic stability through reemployment.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retirement readiness, the greater the self-realization desire. In addition, the relative influence was large in the order of social, physical, and economic retirement readiness. Social retirement readiness had a great influence on social status re-employment desire, followed by economic retirement readiness.

Third, social support mediated partially the relation between the retirement readiness and the re-employment of the middle-aged. The fact that middle-aged people have various reasons and motivations for re-employment depending on their individual's retirement readiness, and there ar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urpose of reemployment. and that social support partially mediates means that reemployment support should be based on individual's desire. In particular, since the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reemployment of the middle-aged are low, the support program for reemployment of the middle-aged should be provided based on emotional support such as social support.

Key Words : Middle Aged, Readiness for Retirement, Desire for Reemployment, Social Support.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Vocation, Kyonggi University, #154-42, Gwanggyosan-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166227; E-mail: soonhiekang@kgu.ac.kr; Tel: +82-31-249-9055; Fax: +82-31-249-9055.